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만든다

전주시,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등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전주시가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재유행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시민안전 편의증진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시민홍보 등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된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된 이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재유행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추석 연휴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화산·덕진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비상대응반과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역학조사반을 정상 가동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석 명절 불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하면서 16개 중점과

리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부서별로 분산해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에 △대중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생활민원을 신속히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해 종합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SNS 등을 활용해 추석 연휴기간 생활방역수칙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오는 추석연휴기간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귀향객과 전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남 여수시의회가 29일 전주시의회를 찾아 의원 연구 단체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벤치마킹하고, 의정 발전과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수시의회, 전주시의회 벤치마킹

방문단, 의원 연구 단체 활동 등 운영 정보 공유·청사 견학

전남 여수시의회가 29일 전주시의회를 찾아 의원 연구 단체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벤치마킹하고, 의정 발전과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현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등 10여명의 여수시의회 방문단은 이날 전주시의회 본회의장과 회의실 등을 둘러보고, 의원 5분 발언과 본회의장 운영 방식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여수시의회 관계자들은 의원 조례연구회 운영 등 전주시의회의 의원 연구 단체 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해당 시스템을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08년 의원연구단체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활발한 의원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제12대 의회에서는 조례연구회를 비롯해 비전, 도시공간, 관광거점도시실현, 로컬라이징 등 5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강현태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전주시의회 방문을 통해 조례연구회 등 의원 연구 단체와 각종 시스템 등 운영 사항 전반에 관한 좋은 사례를 알게 됐다"며 "앞으로 양시의회가 상호 교류를 통해 의정 활동 전반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여수시의회 방문은 상호간 효과적 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시·군과의 교류를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주시장 경선 개입 혐의' 지역 일간지 기자 검찰 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얻으려 한 지역 일간지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일간지 기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종선 예비후보에게 접근하여 금전 지원 등을 조건으로 당선 시 인사와 사업권을 브로커에게 주도권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은 지난 4월 이종선 전 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 전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브로커들이 후보가 돈을 못 받으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한 권한을 달라고 했다"면서 "대가로 시청 국·과장 자리를 요구했고, 대부분 건설과쪽 자리였다"고 폭로했다.

이에 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수사에 본격 착수했고, 선거 브로커 역할을 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종선 전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는 대가로 인사·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먼저 검찰에 넘겨진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B씨 등 2명(구속기소)은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말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 어진박물관, 9월 1일~내년 말까지 휴관

31일 행사 끝으로 증축공사 진행... 경기전은 정상 운영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오는 31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끝으로 박물관 증축공사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휴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약 27억5000만 원을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오는 31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끝으로 박물관 증축공사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휴관한다.

/김재훈기자

투입해 어진박물관 1층과 지하층 일부를 증축할 계획이다.

건물 1층에는 기존 지하에 위치했던 어진실이 이전되고 관리동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어진실이 있던 지하공간은 휴게시설로 조성된다.

공사 기간 휴관하는 어진박물관과는 별개로 경기전은 정상 운영된다.

어진박물관은 지난 2010년 11월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을 맞아 조선태조어진(국보317호)과 경기전 유물들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개관한 박물관이다.

시는 관계자는 "공사기간 중 경기전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쾌적한 관람환경에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주시, 고질체납자 강력 징수활동 펼친다

9월 말까지 101억원 징수 목표

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2022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101억 원(지방세 74억 원, 세외수입 2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세입부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촉촉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

다.

시는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은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민원 최소화화를 위해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인 상습 체납차량만 영치하기로 했다.

시는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최근 은닉재산으로 활용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압

류하는 등 체납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제청과 관세청에만 제공해왔으나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에 매각실익 없는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해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훈기자

전주시, 하반기 공동체 이해교육 참여자 모집

6-7월 교육 수강생 평가 "만족"

전주시는 지난 6~7월 5회에 걸쳐 운영한 '공동체 이해교육'의 강의 평가가 수강생 50명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 교육은 앞서 공동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선배공동체와 함께 △교육 △공예 △환경 △문화·예술 분야 공동체 활동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공동체들은 테라리움 만들기 등 동화구연 등 기존 공동체의 활동을 체험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키웠다.

시는 다음 달 21일부터 하반기 공동

체 이해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에는 각 회차별 10명 내외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 누리집과 전화(063-281-2827)로 신청하면 된다.

양명숙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이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의 강의를 맡은 공동체는 지난해 전주형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들로, 현재 돌봄·환경·마을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활동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남전주IC 서히스타힐스 일반분양

사는방식은 중심생활권! 프리미엄은 전주생활권!

건축개요

사업명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위치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323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5,641.00㎡	연면적	70,638.1691㎡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28층 / 5개동	건축세대	59㎡, 84㎡ 총 613세대

조합원 부담금 및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 무이자60%						잔금 (30%)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정액제 1,000만원	계약 후 1개월 이내	10%	10%	10%	10%	10%	10%	

일반분양 청약 및 계약장소

청약 및 계약장소 / 주택홍보관(M/H)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494-7 (전주시 완산구 속고개로 155-8)

800만원대 분양가

전용 59㎡ / 84㎡ 총 613세대 일반분양 262세대

계약금 정액제 (1차·1천만원)

중도금 무이자

계약즉시 전매가능

8월 일반분양 OPEN

1644-7145

공휴일 정상근무

시행사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유)금광주택건설 시공사 (주)서희건설 자문관리사 우리자산신탁(주)